



동우칼럼

따은 정직하다

세상에는 쉽게 성공하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적게 수고하고 많이 얻으려 하고,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나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는 자는 도둑 외에는 없다. 노력 없이 얻으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질서는 이렇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정직한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며 진리이기 때문이다.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는 없다. 농부는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어야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을 알기에 최선을 다한다. 자연의 법칙도, 신앙의 법칙도 같다. 지혜자는 말한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잠14:23).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땀 흘려 일했다. 그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수고를 보셨고, 큰 축복을 받게 하셨다.

룻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잃고 가진 것 하나 없던 룻은 들에 나가 이삭을 주우며 성실하게 일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의 부지런함을 보았고, 하나님은 그녀를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의 자리까지 높여주셨다. 축복은 성실한 땀방울 위에 내려앉는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가 있어서 가능했다.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했고, 자존심을 버리고 배웠고, 잠을 즐기며 연구하고 노력했다. 그 열매를 지금 열심히 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는다.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꾼 자의 몫이다. 과정 없는 결과가 어디 있을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심은 대로 거두고, 뽑
히려 만큼 열매를 얻는다. 신앙생활도 같
다. 기도한 만큼 믿음이 자라고, 말씀 읽
은 만큼 영성이 깊어지고, 섬긴 만큼 사랑
이 자란다.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오늘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내일의 축복임을 알자.

가자!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으로~!!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목
사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여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기회 맞입니다.

세계 먼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교사역에는 동참할 수 없더라도 가까운 곳이라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야 없지요. 더군다나 10월 9일은 한글날로 공휴일이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시대 목사님 말씀처럼, 모두가 선교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주로 향하는 당신의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보시고 당신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양처럼,

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
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롬10:13~18).

청주 무심천 전도집회는 청주예수중심 교회 일오삼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전도사역을 지속하며 꿈을 키워온 결과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물론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 청주지역에 대대적인 복음 전도집회를 열어보자고 독려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군산 전도집회나 올해 대구 및 아산 전도집회의 성공은 더욱 그 꿈을 단단하게 하고 더 큰 꿈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청주에서 열리는 이번 전도집회는

늘입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교회
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으로 명령하
신 복음전파의 사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도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
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
니라”(행 1:8).

세상 풍조가 아무리 갈리고,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날마다 한 걸음씩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열적 갈망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하시며 반드시 당신의 삶 전체를 축복하시고 그날에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가야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

청주 무심천 고수부지에 마련된 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진행됩니다. 야외인 데다가 장소의 규모도 커서 그들에게만 이 집을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지난해 군산 월명체육관을 가득 채웠던 그 관심과 열정 이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목도하며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빅찬스입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세상은 편안하다, 안일하다 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은 식다 못해 그 불씨조차 찾아보기 힘든 오

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그를 믿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

목사님을 따라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길을 달려갑시다. 우리가 예배 마지
막에 부르는 찬송처럼, '나는 가리라 주
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청주 무심천 전도집회

날짜: 2026년 10월 9일(한글날), 오후 2시 장소: 무심천 체육공원(롤러스케이팅장)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21:9~19)

마음이 맞는 자와 살아야 행복하다

오래전, 장애가 있는 성도분이 제게 구두를 선물했었습니다. 악어가죽으로 만든 거라 아주 비싸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일본집회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일본 갈 때 꼭 신고 가라고 당부하기도 하고, 또 없는 형편에 큰 선물을 해준 성도의 마음이 고마워서 그걸 신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게 제 발에 안 맞는 겁니다. 집회 장소인 우에노 공원을 한 바퀴 돌러보는데 발뒤꿈치가 얼마나 아프고 쓰린지, 신발을 벗어보니까 발뒤꿈치가 다 까져 있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더군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명품 신발이 어떤 건 줄 압니까? 수백만 원하는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 내 발에 맞는 신발이 명품 신발입니다. 내 체질에 맞는 약이 명약이고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토양이 맞아야 실한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마음이 맞는 자는 우주와도 안 바꾼다

이걸 인생에 적용해볼까요? 행복한 삶, 명품 인생은 나와 맞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과 살고, 맞는 자와 결혼하고, 맞는 자와 동업하고, 맞는 자와 정치해야 행복합니다. 맞지 않으면 미리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사람(人)은 글자 모양처럼 나와 또 다른 누군가가 기대어 살게 되어 있고, 더욱이 인생은 다른 누군가와 이인삼각(二人三脚)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인삼각 경기란 두 사람이 안쪽의 다리를 서로 묶고 함께 달리는 경기입니다. 그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계속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되어 전진하지 못하니 결승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와 호흡이 척척 맞으면 이것보다 신나고 재미있는 게임이 없습니다. ‘하나, 둘’ 하면서 결승라인까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대는 부모나 형제일 수 있고, 부부일 수 있고, 친구나 동료나 동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음이 안 맞는다면 어떨까요? 저는 42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줍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어 고통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줍니다. 아브라함도 가족과의 갈등으로 고민했습니다. 먼저는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 그것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 그래서 집안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브

라함은 둘 사이에서 힘들었어요.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요, 이삭도 내 새끼니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창21:11). 이 일로 근심에 싸여 번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창21:12).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보내라.”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어깨에 메어 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겠지요. 그러나 만일 아브라함이 계속 하갈과 이스마엘을 정 때문에 끼고 있었다면

면 아브라함 집안은 매일 다툼으로 시끄러웠을 것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관계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 아브라함의 가족을 기르는 목자와 롯의 가족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창13:9). 여러분, 갈라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 계속 시끄럽다면, 갈라서는 것이 서로 사는 길입니다. 고름이 살이 안 되거든요. 고름은 짜내야 큰 수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두고 으르렁거릴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들을 갈라놓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도 가인과 아벨 짝이 나지 않았을까요? 리브가처럼 하와가 현명했다면 살인이라는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부부관계는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혼을 강요하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모 형제나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럽거든, 너무 다뤄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에 미연에 방지하라는 뜻입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잠21:9). 그래서 인륜지대사인 결혼은 처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학벌이 좋다고, 재산이 많다고, 인물이 좋다고 덜컥 선택하지 말고, 오래 사귀면서 이 사람이 나와 맞는

지 천천히 살펴야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살 수 있습니다. 또 저는 맞지 않는 자와 일하면 서로 다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믿음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동행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갈라서기로 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데도 그냥 참고 갔다면, 그들은 대립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해외 집회를 다닐 때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세 명만 데리고 다닙니다. 그들은 저와 생각과 마음이 너무 잘 맞는 찰떡궁합입니다. 그러기에 적은 인원으로도 대형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목회자들과 제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단단히 예수 중심교단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합한 다윗을 통해 그의 계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1:1).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하실 때 조건이나 인

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자를 택하셨습니다(막3:13).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소리나는 바퀴는 갈아 끼워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맞는 자와 결혼하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6:14~16).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고, 기름과 물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제사 문제가 생기고, 주일이면 ‘놀이 가자’와 ‘교회 가자’로 실랑이해야 하고, ‘왜 십일조를 드리냐, 왜 주일에배만 드리면 되지, 교구에배까지 나가냐’ 등등 부딪쳐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창업 때 ‘예배를 드릴 것이냐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드릴 것이냐’, ‘주일에도 일을 할 것이냐 주일을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들로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마찰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투면 방축이 무너지는 꼴이니 가정인들, 사업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이 혼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업을 깨라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참고 하라는 말입니다. 학연, 혈연, 지연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이 합한 사람인지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토너에게 가장 힘든 것은 언덕이 있는 코스가 아닙니다. 신발 속의 작은 모래 한 알입니다. 작은 모래 한 알이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그것이 마라토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달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시 숨을 돌리며 그것을 빼내야 남은 구간을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라토너인 우리, 작은 모래알 같은 존재가 있거든 빼내고 달립니다. 신발을 벗고 터는 시간이야 좀 걸리겠지만, 그래야 나머지 인생 구간을 편안히 달릴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길 원하시죠? 마음이 맞는 자, 신앙이 맞는 자를 찾으십시오. 마음이 맞는 자는 우주와도 안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잠15:13).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칼럼 ::

:: 아름다운 인생 ::

기계 네이티브 경제

현대 경제학은 노동, 자본, 토지라는 전통적인 생산 3요소를 넘어 기술, 데이터, 지식 등으로 생산 요소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기계 네이티브 경제」라는 백서를 통해 인간의 간섭 없이 기계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블록체인의 결제 시스템과 결합될 경우 교환부터 정산까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 즉 에이전트 경제가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실물자산과 상품에 대한 권리를 세분화하여 토큰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거래하며 결제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기계 언어로 지불하게 되면 GDP 성장은 물론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이어질 것임을 이미 다양한 사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계 경제의 공장’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에 상당한 부지와 함께 교체 주기가 짧은 고가의 최신 AI 반도체, 첨단 냉각 인프라, 그리고 자체적인 전력·발전 설비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사모 및 공모 자본시장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경쟁적으로 조달하며,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장기 시장금리 상승을 압박하는 등 거시경제적 영향

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초기 단계 투자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엔비디아·아마존·MS 등 선도적 AI 기업들이 강조한 바와 같이 데이터센터의 연산 능력은 핵심 전략 자산이 되어, 선불형 정액제를 통해 모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공급국으로서 블록체인 환경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간접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반면 확장일로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혼돈과 확전으로 치닫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 그리고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충돌은 글로벌 주요 공급망을 극도로 취약하게 하였고, 무엇보다 GDP의 성장 속도와 증가 폭을 장기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수치보다 상회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공급망 차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미국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이 거대하고 불확실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존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 주시고 무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심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 하십니다.

임윤석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첫사랑을 잃지 맙시다

얼마 전,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 부모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신 이후, 우리 교단에서 쫓 신앙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청년은 대학을 졸업한 후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고, 직장 생활에 매진하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높은 연봉도 뽐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될수록 청년은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와 봉사를 하나둘 내려놓으며 주님과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부장과 그를 따르던 직원들이 새로운 회사를 차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청년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으로 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부장의 해고지로 청년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청

년의 마음에 문득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던 중,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말씀이 갑자기 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아!”,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순간 청년은 용기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기도를 도우셨고, 방언이 터지면서 회개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등불이 꺼졌기에 성령을 빼앗기고 어둠의 노예가 되었던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 청년은,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태산 같은 걱정애 놀려 있는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엔진, 성령이 꺼진 것이 큰 문제다.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었는지부터 살펴라.”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면 그 능력을 힘입어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맙시다. 성령 충만하여 모든 문제를 이기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리게 우리 모두가 됩시다!

김진실 사모

단단하되 부드럽게

굳은살은 반복되는 마찰과 압박으로 피부가 단단하고 두꺼워진 것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동일하게 거듭되는 시련을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에도 굳은살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크게 흔들렸던 입에도 조금씩 담담해지고, 전보다 잘 견딜 수 있게 되니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목상을 하다 보니 굳은살에도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어느 정도의 단단함은 분명 필요하다. 매번 모든 일에 아파하고 흔들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련을 견디며 단단해진 마음이 정작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할 하나님을 향한 토설마저 가로막는다면 어떨까.

한나가 오랜 고통 속에도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마음을 숨김없이 쏟고 싶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굳은살이 생긴다. 덕분에 예전보다 잘 견디기도 하고, 웬만한 일에는 쉽게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강한 척을 하고 싶지 않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며 내 마음을 가감 없이 쏟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겔36:26)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세상을 견디는 일에는 단단해지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날마다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한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겔36:26).

김혜리 교육 전도사



:: 낮은 울타리 ::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라

몇 주 전,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목부터 가슴 위까지 두드러기가 납니다. 거울을 보며 걱정하던 와중, 문득 최근에 읽은 교회 신문글이 생각났습니다. 여드름 피부로 걱정이 많던 김진실 사모님께서 이초석 목사님 말씀대로 명령하여 피부가 말끔히 나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그 신문글이 떠오르자마자 방에서 나가 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에게 저의 피부를 보여준 후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거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올 거야. 엄마가 내 증인이 되어줘.”

저는 그 말을 하고 다시 방에 들어가 거울을 보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다음날 제 피부는 놀랍게도 가라앉아 있었습다. 하지만 마귀는 이런 저의 믿음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3일 후 제 피부는 그 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고 자기 전에 귀신을 다시 쫓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후 집에 가서 옷을 벗고 몸을 보는데 정말 놀랍게도 두드러기가 전혀 없던 사람처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서울대학부 아도나이 워십팀 팀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9월 말에 있는 워십 작품을 위해 첫 연습을 앞두고 있는데, 연습하기 바로 하루 전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저는 원래 척추분리증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꼬리뼈와 척추뼈가 부딪혀 걷는 것도 어려워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도 마귀의 공격이고, 귀신이 제 다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제 몸에 회복을 명령했습니다. 병원에서서는 복대 차고 2주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3일 뒤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연습도 다 참여하고 5km 러닝을 뛰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 튼튼해졌습니다.

이렇듯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날 공격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맞서 싸워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예수중심 교인이 됩시다!

장수정

엔진만 꺼지지 않으면 삽니다



나는 ‘기도는 영적 엔진과 영적 심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끄지 않으려고, 영적 심장을 멈추지 않으려고 매일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우리는 부산을 출항하여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일본 해역에서 초대형 태풍 중심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산더미만 한 파도가 배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 다니며 선체를 쉴 새 없이 두드렸고, 선체 좌우와 선수, 선미로 심하게 흔들거려 사람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으며, 주방에서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 나흘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큰 선박이 대자연 앞에서 일엽편주, 추풍낙엽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난 자연 앞에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투하고 있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나는 기관실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삼등 항해사가 겁에 질린 모습으로 기관실로 달려와 나에게 말했습니다. “전 선원들이 브릿지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선장의 퇴선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관사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브릿지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태풍이 너무 강력하여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퇴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삼등 항해사에게 말했습니다. “사는 데까지는 살아야 한다. 엔진이 정지되면 모든 게 끝장이다. 엔진이 살아있어야 이 거센 풍랑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삼등 항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브릿지로 돌아갔고, 나는 기관실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선체가 심하게 기울 때 엔진 연료 계통이나 윤활유 계통에 AIR(공기)가 빨려 들어가면 엔진이 정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풍파 앞에서 나에게 두려운 건 풍랑이 아니고 엔진이 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엔진만 살아 있다면 3,600마력이나 되는 디젤엔진이 이 거센 풍랑도 뚫고 나가리라 믿었기에 홀로 기관실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으며, 마침내 5일 동안의 폭풍우 흑암 속을 통과하여 당시 보급 기지였던 소망의 항구 GUAM(괌)에 무사히 입항하였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 여정은 대양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을 경험하지 않은 선원들이 어디 있겠으며, 풍파를 겪어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총회장 목사님께서 저를 간증하실 때마다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내가 쓰임 받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라는 가르침은 내가 총회장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나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엔진(ENGINE)만 살아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영적 엔진인 기도만 살아 있다면 어떤 풍랑도 헤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엔진이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 버리고 희망도 사라집니다.

“파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맞짱을 뜨는 것이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영적 엔진인 기도를 꺼뜨리지 말고 살려서 내게 닥친 문제와 맞짱 뜨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태평양에서 문경연 피택장로

Good News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낯선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낯은 저물고 주위는 어두워졌지만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길을 알아서 가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지식과 재물, 선한 행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 죄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롬3:2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죄 사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4:6).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상화평 목사

:: From Internet ::

탈출의 빈 차

벌써 2시간.

그는 거리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폭탄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머리 위에서는 수시로 미사일이 떨어졌죠. 가족과 함께 방공호에 피신해 있던 그는 상황이 악화되자 키이우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차량도, 휘발유도 구하기 어려웠죠. 그때 눈에 띈 것이 엉망이 된 도로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였습니다. 시동장치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고, 기름도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처럼 말입니다.

지켜보던 그는 차를 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러시아의 폭탄에 가족 모두 목숨을 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시간 후에도 차량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차를 훔쳐 가족과 떠났습니다. 키이우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빈니차에는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키이우를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가 차를 훔친 탓에 누군가 키이우를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차를 뒀진 끝에 글로브박스에서 차주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 차를 훔쳤어요.”

전화를 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차 주인의 첫 마디는 뜻밖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차주는 주춤대는 그에게 “걱정 마세요. 내게는 차가 4대가 있었고 우리 가족들은 그중 한 대인 지프차로 이미 탈출했습니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

죠. “나머지 차는 기름을 채우고 열쇠를 꽂은 채로 각각 다른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글로브박스에는 내 전화번호를 남겼고요. 나머지 3대의 차량들에서도 전부 연락이 왔어요. 곧 평화가 올 거예요. 몸조심하세요.”

차 주인은 누군가 차를 훔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차를 훔쳐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를 탈출하기를,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아주기를, 그래서 전쟁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 겁니다.

이 사연은 우크라이나의 전직 외교관인 올렉산드르 셰르바가 지난 5월 2일 빨간 차량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차를 훔친 이가 누구인지, 차량 주인은 또 누구인지 아무것도 확인되지는 않으나,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이 이야기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품게 합니다.

입조심

작년에 내가 속한 서울 청·장년부에서 주일 헌금송을 준비하던 때의 일이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다 함께 단에 올라가는 헌금송이었다. 아이들은 앞에서 율동을 하고, 엄마, 아빠들은 뒤에서 박수만 치던 예년과는 달리, 엄마, 아빠들도 손으로 둥글게 둥글게 하는 동작과 경례 후 손을 한쪽 위로 번쩍 드는 동작 등 여러 율동이 추가되었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그러한 율동을 하니 점점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쌓였다. ‘나이 사십이 넘어서 이런 율동을 하다니... 이거 보는 사람들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엄마, 아빠들은 박수만 치면 될 것을 둥글게 둥글게라니... 아, 정말 하기 싫다.’ 매번 연습이 끝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푸념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헌금송을 며칠 앞둔 시점부터 갑자기 아이들이 독감에 걸리고, 독감이 낫자마자 가족 모두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 쉴 새 없이 토하고 설사하고, 새벽에 응급실 가고, 둘째 아이는 입원하고, 가족 모두 수액을 맞고. 정말 우리 가족 역사상 최대 위기였다. 결국 그렇게 우리 부부는 헌금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때 깨달았다. ‘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내가 계속 하기 싫다고 불평불만하니 결국 못하게 되셨구나.’

그 이후로 나는 내 입단속을 철저히 한다. 아내와 대화하다가도 내 입에서 불평불만의 뉘앙스가 나오면 멈추고 바로 회개하고, 가족들 입에서 나올 것 같으면 손가락으로 쉴 채스처를 취한다.

올해도 청·장년부 헌금송 연습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공지가 되었다. 연습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는 차에서 헌금송을 틀고 다니며 외우기 시작하였다. 파란 하늘을 향해 방긋 웃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헌금송 준비할게요. 둥글게 둥글게 몇 번이고 돌릴 수 있어요! 엔딩요정 하트 동작도 팬썸아요! 저는 이제 ‘아니오’가 없어요!”

작은 일로 빨리 깨달아서 참 다행이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141:3).

박찬영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